

# 알래스카 툰드라지대

## 개발과 보전의 대립

편집부

알래스카 툰드라지대에서는 100마일에 달하는 북극국립야생보호지에 매장된 35억 배럴의 석유의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야생보호단체와 석유회사가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약 20년전 서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푸르드만에서도 벌어졌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환경오염상을 보여주는 것은 북극지대의 석유개발이라던지 쓰레기더미들의 사진들이었다. 올해에는 이와는 달리 다른 내용을 내걸고 있다.

온실효과,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여러 환경단체들이 주제로 설정했고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대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지구가 따뜻해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석유의 가치와 멸종위기의 순록떼의 생존을 비교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는 국가에너지정책에 석유발굴을 엄하게 압력을 넣고 있고, 적어도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방향,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자 목표를 높이고 있다.

이 문제는 부시대통령이 취임시 내건 공약중 하나인 “환경에 대한 신임도”와 이를 위해 국회에서의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그의 첫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1980년에 전 9백만 에이커의 알래스카야생대가 야생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해안구역만을 내무성이 석유부존가능성과 시추가능성을 결정할 때까지 야생보호구역 설정을 미루고,

1986년에 탐사를 위해 150만 에이커를 내주었다.

이 안건은 작년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올해 다시 상정, 결정할 것이다. 환경전문가들은 부시와 내무장관에게 1986년도 보고서를 보류시키고 문제점을 다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알래스카보호지역내의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이 부시대통령의 예산안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35억 배럴의 석유는 미국에서 겨우 6개월 정도의 사용량밖에 되지 않는다.

「안전」이란 이 논란에서 상대적인 뜻이다. 상대편은 둘다 푸르드만의 예를 들고 있다. 미국원유회의 대변인인 조셉 래스테릭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푸르드도의 야생동물을 해치지 않았고, 어떠한 엄청난 재앙도 예견처럼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파이프 손실이나 저유조사고가 없었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다.

환경관계자들이 푸르드만 연구를 보면, 북극지방에서의 생태학 저하, 산업화, 대기 및 물 오염이 미국에서 최후의 야생지중 하나인 수백평방마일에 퍼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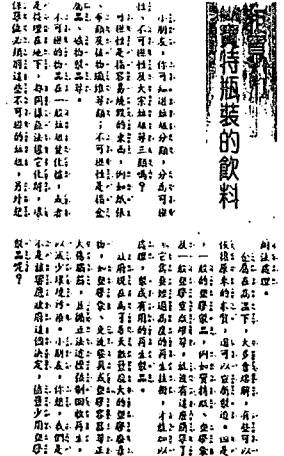
해안지역은 북아메리카에서 야생동물이 가장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1800년 후반부터 알래스카에만 있는 사향소는 현재 500마리정도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야생보호단체에서는 석유를 시추하는 드릴과 트랙터의 시끄러운 소음속에서 동물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 라고 말한다.\*

#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환경청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 <편집자註>



##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를 불매한다.

어린이 여러분은 쓰레기가 가연성, 불가연성, 기타 대부분의 쓰레기 등 세종류로 분류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연성은 쉽게 타버리는 물건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종이나 천종류, 식물섬유 등의 종류이지요.

불가연성은 금속품, 광물제품을 말합니다.

불가연성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쓰레기 조각 화덕이나 혹은 쓰레기더미의 땅속에서 썩어 분해될 수 없는 것으로서 환경보호의 단위는 바로 이러한 불가연성의 쓰레기를 특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속물질은 고온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플라스틱제품, 예를 들어 寶特瓶(우리나라의 1ℓ 짜리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같은 제품)이나 비닐봉지 및 일반플라스틱 강통들은 금속물질처럼 고온에서 용해될 수 있는 쉬운 성질이 아니라서 고도의 재생산기술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처리의 도움을 받아 유용한 재생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매일 방대한 수량의 플라스틱 폐기물, 예를 들어 비닐봉지, 일회용 은박지 혹은 플라스틱 용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골치를 썩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회수하여 재생하려는 과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부의 이러한 결정들을 따라서 힘을 합하여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